

물가 오르고 주력 제품 수출 '뚝'... 경기 침체 출구가 없다

광주 8월 실업률 4.2%... 제조업·도소매·음식업 일자리 급감 자동차 수출 22.7%·가전 34.5%↓... 농산물값 최대 40% 올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물가는 오르면서 서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도 생산을 줄이면서 지역 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지역 경제에 불어닥칠 악재(惡材)가 쉽게 겹칠 것으로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 쇼크, 이보다 더 나빠지나·호남 지방통계청이 오는 12일 발표하는 '9월 고용동향'은 지역 '일자리 쇼크' 상황이 나아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지역 경제계의 관심이 쏠려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9월은 통계상 10만명을 꺼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며 자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상황이다. 최악의 지표가 겹쳐지지만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광주시에 대한 지역민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다.'

광주의 8월 실업률은 4.2%로 전년도 같은 기간(2.7%)에 견줘 1.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올해를 제외하면 광주 실업률이 4.0%를 넘어설 때는 지난 2016년 이후 2월(4.0%)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고용 창출력이 큰 제조업을 비롯, 영세

자영업자와 도소매·음식업 종사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팍팍한 소비... 물가 오르지 않자 당해=물가 상승세도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농산물물 물가는 감장철을 앞두고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름값도 고공 행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민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9일 배추와 무를 비롯한 토마토와 오이, 풋고추 등 주요 과채류와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무 가격은 지난해 평년보다 무려 95% 이상 비싼 20kg당 1만7000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배추 역시 평년보다 4.6% 오른 10kg당 5000원 내외에서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다. 당근도 지난해와 평

년보다 58% 상당 오른 20kg당 6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토마토는 지난해보다 무려 두 배 이상 가격이 뛰고 오이와 풋고추, 배, 포도 등 다른 농산물 가격도 최소 10%에서 최대 40% 비싸게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8% 상승, 지난해 10월(1.8%)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서민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름값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전남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의 평균가격은 각각 1당 1664.11원과 1661.92원으로 지난 2014년 12월 둘째 주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다. 여기

에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생산·투자도 불투명... 지역 경제 위기의 늪=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2018년 8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수출 물량은 1년 전(12억 7600만달러)보다 10.9%(11억 3700만 달러) 줄었다.

자동차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22.7% 줄어든 3억6700만 달러에 머물렀고 타이어 수출 물량은 33.2%나 줄어든 3700만 달러에 그쳤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1년 전보다 34.5% 감소했다.

생산도 감소세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상반기(25만3440대)에 견줘 올 상반기 생산량을 10.6%나 줄였다. 금호타이어

도 올 상반기 타이어 생산량(2230만개)을 전년도 같은 기간(2265만개)에 비해 줄였고 노조와 협의, 재고 감소를 위한 공장 휴무를 조정중이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생산량 증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투자도 건설부분의 경우 2분기 대비 감소한데다, 주력 업종의 수출 물량 감소로 인한 생산량 조정 등을 감안하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쉽지 않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8%로 하향 조정하는가 하면,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은 2.6%로 예상하는 등 어두운 전망치를 내놓아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네덜란드에 취업 해볼까 광주서 내달 1일 취업 로드쇼

유럽 최대 반도체기술연구소 IMEC, 세계 4대 전문인력 헤드헌팅사의 계열사인 YACHTS 등 네덜란드의 첨단 회사와 연구기업에 대한 취업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은 오는 11월 1일 광주과학기술원 오통관에서 '네덜란드 첨단산업 취업 로드쇼'를 연다. 로드쇼는 네덜란드 첨단회사 및 연구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유능한 이공계 엔지니어, 과학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대전, 광주, 포항 등을 돌며 진행된다.

행사에는 아인트호벤 공대의 스피노프(분사) 회사인 Effect Photonics,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반도체 및 나노 기술 연구소인 IMEC, 세계 4대 전문인력 헤드헌팅사 중 하나인 Randstad의 계열사 YACHTS가 참여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예술 입은 식기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홀리빙 전문관에서 식기브랜드 '아티스티나' 매장 직원들이 인테리어 효과를 겸비한 테이블 식기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가을에 어울리는 테이블 식기 특집전'을 열고 14일까지 아티스티나 브랜드 전 품목을 30~7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쇼핑 제공>

신설법인 증가 속 제조업 나홀로 감소 광주·전남 전년비 106개 늘어... 도소매·정보통신업 ↑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법인을 중심으로 신설법인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감소세를 이어가는 추세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남지역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에 비해 56개(20.4% ↑)가 증가해 대전(63개·41.4%)과 세종(10개·22.7% ↑)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광주는 50개(19.3%)가 증가해 전국 네 번째를 기록했다.

국내 신설법인은 총 8727개로,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법인을 중심으로 설립이 확대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8개(3.2%)가 증가했으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056개·23.6%), 제조업(1672개·19.2%), 부동산업(837개·9.6%), 건설업(783개·9.0%) 순이었다.

도·소매업이 503개(32.4% ↑), 정보통신업이 120개(20.0% ↑)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늘어났다. 도·소매업은 온라인 시장 및 신선농산물 판매·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및 신선식품 도매업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213개(11.3% ↓), 건설업은 82개(9.5% ↓)로 법인설립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여성법인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8개(10.1%) 증가한 2269개, 남성 법인은 60개(0.9%) 증가한 6458개로, 여성 법인 비중은 26.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6%포인트 확대됐다.

한편 1~8월 신설법인은 7만435개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4236개(6.4%) 증가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등 15개 대기업 고용세습 여전”

국회 환노위 김동철 의원
대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문화가 고쳐지지 않고 있다 <광주일보 9월 5일 14면>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국회 환노동위원회의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9일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이 담겨있는 15개 업체와 세부적 내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했다.

15개 기업에는 금호타이어, 현대차 등이 포함됐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단체협약'(23조)에 '정년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입사 결정 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정년 퇴직자가 요청하면 공개 채용에

서도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사실상 '일자리 대물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기아차도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에 한해 인사원칙에 따른 동일 조건에서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명기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

다.

김 의원은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 산물벼 수매 시작

3653t... 전년비 3.7% 감소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9일 광주지역 벼 추수가 시작됨에 따라 농협광주통합 RPC를 통해 산물벼 수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지역 공공벼축미 매입 계획량은 약 3653t 규모로 지난해 3793t에 비해 3.7%(140t)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나락 수확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일수 본부장은 "추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협 임직원은 특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며 "광주지역 농협은 나락 수매와 관련해 농업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시공문의 **H.010-9229-3530**
 (모던건설)